

-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 현 장 활 동 결 과

개 요

- 일 시 : 2025. 12. 15.(월) 10:30 ~
- 장 소 : 도의회 기자회견장
- 참석현황 : 8명
 - 특위위원 : 염영선 위원장, 박정규 위원, 김성수 위원, 윤수봉 위원
이상길 위원장(정읍), 김정현 부위원장(남원), 이명진 위원장(진안),
김정흠 위원장(임실)
- 주요내용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및 송전탑 건설 재검토 관련
합동 기자회견

I 활동 결과

- 용인반도체 국가산단을 위한 지역 송전탑 건설 강력 규탄 및 전면 재검토 촉구
-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을 적극 반영한 지역균형발전 실현 촉구

II 활동 사진



합동 기자회견

< 용인반도체 국가산단, 이대로 용인할 수 없다! >

지방소멸을 막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는 길,
송전탑 백지화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새만금 RE100 지정,
이전(移轉)이 답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전북 도민 여러분,
그리고 송전탑 건설 계획으로 인해 불안과 고통 속에 계신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

우리는 주민의 대변자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를 비롯해 정읍, 남원, 진안, 임실, 완주, 무주, 장수, 부안 등 각 시·군 의회에서 구성된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한국전력공사의 일방적인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강행에 맞서
전북의 모든 시군 주민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싸우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특별위원회는 송전탑 관련 전북도 내의 대책위원회 및
시민단체, 주민들과 적극 연대하며, 그들의 헌신적인 활동과 주장에 함께 해왔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때까지 의회가 가진 모든 역량과 권한을 동원해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정읍시의회 이상길 특별위원장

지금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지방의 희생을 담보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무작정 끌어올리는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난 일 년 동안 전문가를 초청한 수 차례의 토론회에서 우리는 ‘수도권에 예정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북 이전’이 송전탑 문제의 가장 확실하고 합리적인 해법임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지난 12월 10일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반도체 산업 기업인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남쪽 지방으로 눈길을 돌려서 그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가져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한전은 현재 추진중인 송전탑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아울러, 정부에서는 기업 이전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남원시의회 김정현 특별부위원장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전북도민의 목소리는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지방을 송전탑으로 뒤덮어 수도권 배후기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 기업을 지방으로 보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집권 여당의 일원이자 지역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철학인 ‘지역균형발전’이 ‘에너지 전환’을 통해 우리 전북 땅에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중앙당 및 정부 부처에 강력히 요구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진안군의회 이명진 특별위원장

마지막으로 호소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은 여의도의 높은 빌딩이나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마을 회관에서, 흙먼지 날리는 논밭에서 송전탑 걱정애 잠 못 이루는 어르신들의 거친 손을 잡는 사람들입니다.

“송전탑 밑에 너 같으면 살겠냐”며 눈물 흘리는 주민들의 절규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고 듣는 우리에게, 이 문제는 단순한 전력 수급 논리가 아닙니다. 내 이웃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자, 우리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절박한 현실임을 분명히 밝히며, 이제 정부에서도 이 절박함을 정책으로 응답해야 할 때입니다.

임실군의회 김정흠 특별위원장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지방의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소명입니다.

우리는 주민들과 함께 송전탑 계획이 백지화되고, 우리 고향이 재생에너지와 첨단 산업이 어우러진 기회의 땅으로 거듭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주민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끝까지 함께 싸우겠습니다.

이에 우리 전북 지방의회 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국가균형발전과 에너지 분산 정책에 역행하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즉각 백지화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수도권 공화국이다.
이는 만병의 근원이자 망국의 지름길이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망국의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용인 반도체 산단은 즉각 취소하라!

하나,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지정으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이전하여,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과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라!